



01

한성부의 도시경관과 근대적 변동

1) 한성부 도시경관의 기본구조

1394년 태조가 조선의 수도로 개경으로부터 천도한 이후, 두 차례의 정변을 거쳐 왕위에 즉위한 태종은 1405년 한양으로 재천도하였다. 태종은 1407년 신덕왕후의 정릉을 한양도성의 바깥으로 옮기고, 도성 안을 수도의 기능을 담는 도시공간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창경궁을 확장하여 짓는 등 경복궁과 창덕궁을 새롭게 건축하였다. 1407년에는 개천도감을 설치하여 도성 안의 물길을 정리하여 개천으로 물길을 모으고, 이를 동쪽 낮은 지역으로 흘려보내어 도성 안의 수계를 정비하였다. 이어서 시전행랑축조도감(市廳行廊築造都監)을 설치하고, 숭례문에서 종각, 그리고 육조거리와 흥인지문을 잇는 정자 모양의 대로를 계획하고, 그 좌우에 시전행랑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1421년 도성수축도감을 설치하고, 앞서 태조 때 토성과 석성으로 쌓았던 한양도성의 전 구간을 석성으로 고쳐쌓았다.

이처럼 조선 건국과 재천도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수도건설사업을 통하